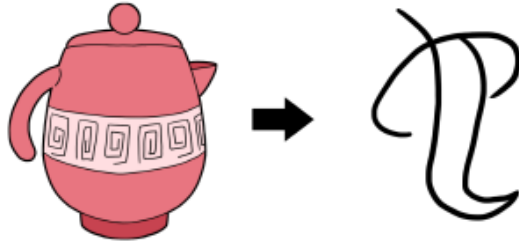


상형문자①



也

이끼/어
조사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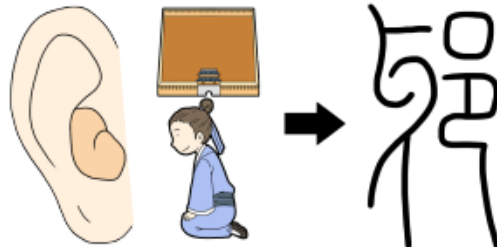
也자는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조사란 ‘~이다’나 ‘~구나’, ‘또한’, ‘역시’와 같은 것을 뜻한다. 也자는 乙(새 울)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새’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也자가 어떤 것에서 기원한 것인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뱀이 꼬리를 틀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고대에 사용하던 주전자를 그린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닌 것은 也자와 결합하는 글자들을 보면 두 해석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대에도 也자의 기원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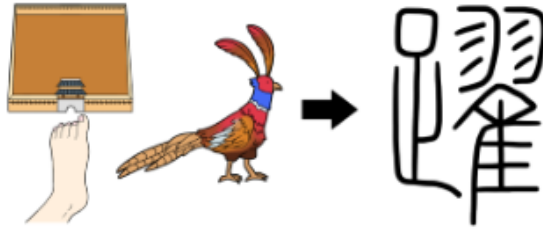
어조사
야

耶자는 ‘그런가?’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耶자는 ‘예수’의 음역으로 쓰이기도 해서 야소교(耶蘇敎)라 하면 ‘예수교’를 뜻하기도 했었다. 耶자는 耳(귀 이)자와 耶(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耶자가 ‘고을’이라는 뜻이 있으니 耶자는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이 귀를 열어 의문을 품는다.”로 해석하곤 한다. 그러나 耶자는 邪(간사할 사)자가 잘못 변이된 글자로 보기도 한다. 소전에서는 耶(𪛗)자와 邪(𪛗)자가 매우 비슷하게 그려졌었기 때문이다. 耶자에 ‘간사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글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躍

뿔 약

躍자는 '뛰다'나 '뛰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躍자는 足(발 족)자와 躍(뿔 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뿔은 나무가 아닌 풀숲에 숨는 성격이 있다. 사람이 근처에 다가가더라도 가만히 숨어 있지만, 위험하다 싶으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곤 한다.躍자는 이러한 뿔의 특성을 응용한 글자로 뿔을 뜻하는 躍자에 足자를 더해 '뛰어오르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躍자는 뿔이 크게 뛰어 날아오르듯이 '도약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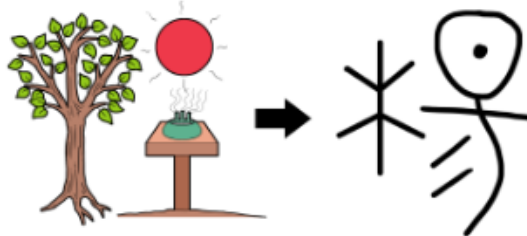
躍

소전

躍

해서

형성문자①



楊

버들 양

楊자는 '버드나무'를 뜻하는 글자이다.楊자는 木(나무 목)자와 楊(별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楊자는 태양이 제단을 비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별'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楊자는 태양이 나무를 밝게 비추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사실 버드나무를 뜻하는 글자로는 柳(버들 유)자도 있다. 실제로는 柳자가 '버드나무'라는 뜻으로 쓰이는 편이고 楊자는 성씨나 지명으로만 쓰이고 있다.

楊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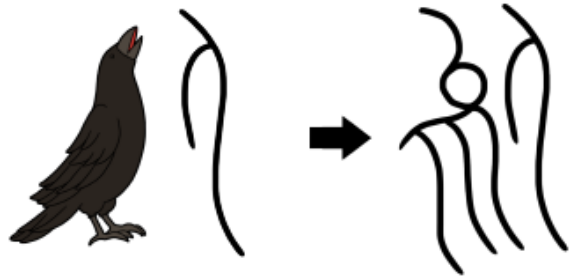
楊

소전

楊

해서

상형문자①



於

어조사
어 |
탄식할
오

於자는 ‘~에’나 ‘~에서’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於자는 方(모 방)자와 손(구결자 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손자는 한문 문장에 구두점을 찍는 용도로 쓰이는 글자로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았다. 게다가 於자는 方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於자의 금문을 보면 烏(까마귀 오)자에 손자가 결합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於자는 본래 까마귀가 내는 소리에 빗대어 ‘아아’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얼마 쓰이지 않은 채 지금은 다양한 ‘어조사’로만 쓰이고 있다. 烏자는 해서에서부터 方자로 바뀌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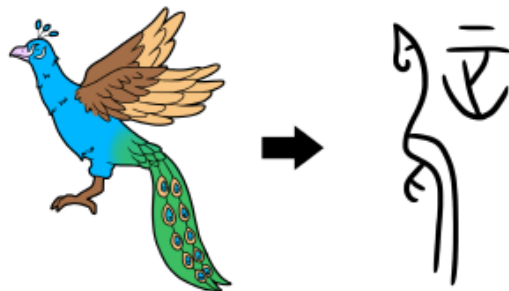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焉

어찌 언

焉자는 ‘어찌’나 ‘어떻게’, ‘어디’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焉자는 正(바를 정)자와 鳥(새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焉자의 금문을 보면 긴 꼬리를 가진 새와 正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焉자는 본래 새의 일종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음을 빌어 ‘어찌’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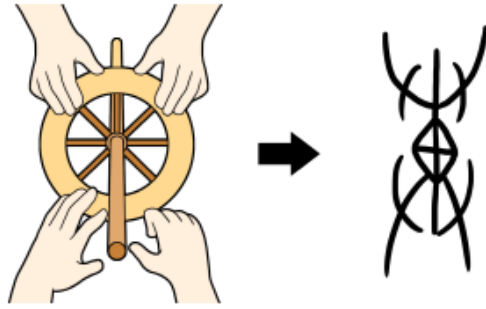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輿

수레 여:

輿자는 '수레'나 '가마'를 뜻하는 글자이다. 輿자는 車(수레 차)자와 舁(마주들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舁자는 위아래로 4개의 손을 그린 것이다. 輿자의 갑골문을 보면 舁자 사이로 수레 바퀴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輿자의 본래 의미는 '가마를 만들다'였다. 후에 輿자는 '대중'이나 '여론'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론이라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말하기 때문에 수레바퀴를 그린 輿자가 응용된 것이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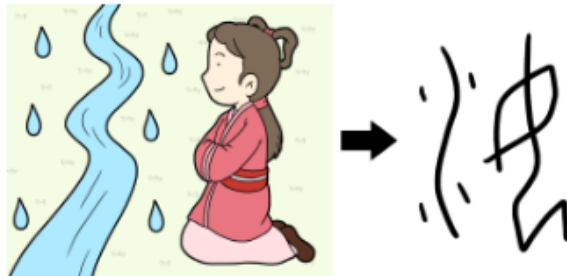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汝

너 여:

汝자는 '너'나 '자네'와 같은 2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汝자는 본래 중국 허난성(河南省) 서부에 있는 강 이름을 뜻했던 글자였다. 강 이름에 女(여자 여)자가 쓰인 것을 보면 강에서 빨래를 하거나 물을 길던 여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관계없이 지금의 汝자는 '너'나 '자네'와 같은 2인칭 대명사로 가차(假借)되어 있다. 참고로 조선 시대에 '영화도'나 '나의주' 등으로 불렸던 여의도는 홍수에도 잠기지 않아 사람들이 '나의 섬'이나 '너의 섬'하고 말장난처럼 부르던 것이 한자화 되어 여의도(汝矣島)가 됐다고 한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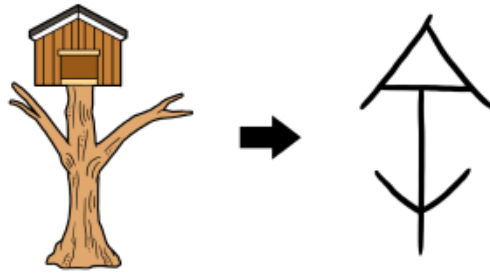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余

나 여

余자는 '나'나 '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余자는 人(사람 인)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余자의 갑골문을 보면 나무 위에 오두막이 𠂔 그려져 있었기 때 문이다. 그래서 余자는 나무 위의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나'나 '남다' 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予

나 여

予자는 '나'나 '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予자는 천을 짜는 직기의 일부를 그린 것이다. 여기에는 실이 감겨있어서 좌우로 교차해 천이 짜이게 했다. 천을 짤 때는 이것을 직기의 좌 우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予자는 '주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하사하다'나 '승인하다', '허락하다'와 같이 무언가를 주는 것과 관련된 뜻이 파생되어 있다. 다만 予자는 쓰 임이 많지는 않고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도 단순히 발음역할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갑골문



소전



해서